

국별 리포트

# 자메이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4.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7
IV. 국제신인도 .....	9
V. 종합 의견 .....	1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 일반개황

면적	11천km <sup>2</sup>	G D P	139 억 달러(2010년)
인구	2.70 백만명(2010년)	1 인 당 GDP	5,132 달러(2010년)
정치체제	내각책임제(입헌군주제)	통 화 단 위	Jmamaican dollar(J\$)
대외정책	우경중립, 비동맹	환 율(달러당)	87.33(2010년 말)

- 자메이카는 카리브해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1/20, 인구는 2.7백만 명(90% 이상이 흑인)인 도서 국가임.
- 주요 수출품목은 알루미늄, 보그사이트, 설탕, 바나나 등이며 수출 구조가 1차 산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국제가격 시세 변동에 취약하며, 1인당 GDP가 5,100 달러 내외의 중소득국임.
- 만성적인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지불능력 악화로 2010년 13억 달러 규모의 IMF대기성 차관 지원을 받았으며, 현재 IMF관리하에 공공부문 개혁과 금융시스템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sup>e</sup>	2011 <sup>f</sup>
경제성장률	1.4	-0.9	-3.1	-1.0	1.5
재정수지/GDP	-4.1	-7.3	-10.9	-7.1	-5.0
소비자물가상승률	9.3	22.0	9.6	12.6	8.1

자료: IMF, EIU

#### □ 2008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 지속

- 자메이카 경제는 우호적인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의 허리케인 피해로 인한 인프라 파괴, 농산물과 광물 생산 부진, 수출 감소 및 내수 침체 지속 등 2004년 이후 연평균 1~2%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대미 수출 및 관광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2000년 들어 처음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0.9%)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도 미국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와 해외근로자 송금 급감, 실업률 증가에 따른 내수 침체로 인해 경기가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리며 -3.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10년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주요 수출품인 알루미늄 및 보크사이트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폭력조직에 의한 소요사태로 인해 관광수입이 감소하였고 허리케인으로 인해 농작물 생산이 급감하고 주요 인프라 시설이 유실됨에 따라 경제성장률(-1.0%)은 마이너스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함.

#### □ 물가상승률은 두자리 수 대의 높은 수준 유지

- '90년대 중반에는 물가상승률이 100%에 달하기도 했으나, 긴축 통화정책, 환율 관리, 시장 개방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의 조치로 98년 물가상승률을

한자릿대로 축소하는 데 성공하였음. 그러나 2003년 이후 재정적자 확대와 외채의 과중한 부담 등으로 자메이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며 수입 가격이 상승하였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급속히 상승함.

- 2008년에는 해외송금액 유입 감소와 수출 급감 등으로 환율 약세가 지속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인 22%를 기록하였음. 2009년에는 내수 위축 및 국제 원자재 시세 하락으로 물가상승률이 크게 낮아져 9.6%로 한자릿대 상승률을 회복하였으나 2010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허리케인 피해로 인한 농작물 생산 감소로 식품가격이 상승하면서 12.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함.

□ 재정수지 적자 지속

- 자메이카는 과중한 외채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겪고 있으며, 세수확대 및 정부지출 감소 등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해 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입품(농산물, 원유) 가격 급등, 2007년의 허리케인 피해, 2008년의 미국발 금융 위기 등으로 경기가 침체를 보이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

- 2009년은 수출 감소, 관광산업 및 내수 위축 등으로 정부 수입이 급감하여 GDP 대비 적자폭은 -10.9%로 더욱 확대되었으며, 2010년에도 경기침체와 허리케인 피해로 인한 세수감소로 적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채무재조정 실시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과 인프라 부분에 대한 정부투자 감소로 정부 지출이 줄어들면서 GDP대비 적자폭은 -7.1%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 자메이카 정부는 IMF의 구제금융을 위해 2010년 2월 국내 발행 채권을 대상으로 채권만기연장, 이자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재조정을 단행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경제 구조가 소수의 1차 상품으로 이뤄져 가격 변동에 취약

- 과거 자메이카 경제는 봉제업 등 일부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수년간 통화가치 고평가와 임금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 기반이 크게 위축되어, 보크사이트, 알루미늄, 설탕 등 1차 상품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로 전락하였음.
- 2006-08년간 국제 원자재 시세 상승으로 알루미늄의 수출액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9-10년에는 세계경기침체로 알루미늄 수출이 급감하는 등 대외변수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불안한 기후여건에 따른 흉작 지속으로 사탕수수, 바나나 등 농산물의 수출 증가세는 매우 미미한 편임.

#### □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도 심화

- 자메이카는 지정학적 관계로 인해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편임. 자메이카의 해외근로자 송금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대 미국 수출은 총수출의 32.9%를 차지하고 있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메이카 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임.

### 나. 성장 잠재력

#### □ 최대 외화수입원인 관광업 성장세 둔화 전망

- 서비스업이 자메이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64%이며 이중 대부분은 관광산업이 차지하고 있음. 자메이카는 마이애미에서 제트기로 1시간 거리로 미국, 캐나다 등의 관광객이 크게 몰려 관광업은 자메이카 최대의 외화소득원으로 자리 잡고있음.
- 한편, 미국 경기침체 등으로 관광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자메이카 통화의 고평가로 인해 인근 중미국가들에 비해 관광업 경쟁력이 약화 추세임을 감안하여 주요 분석기관들은 당분간 관광업의 성장 둔화세를 전망함.

## 다. 정책성과

### □ 대외채무 축소가 정책의 최우선순위

- 자메이카 정부는 대외채무 축소를 정책의 최대 목표로 놓고 재정 및 통화정책을 추진 중임. 연간 재정지출의 50%를 대외채무 원리금 상환에 할애하고 있을 정도로 외채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며, 2009-10년에는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이 각각 90%를 상회하였음.

### □ 2010년 13억 달러 규모의 IMF 대기성 차관 협정 체결

-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메이카는 마이너스 경제성장 지속, 만성적인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지불능력 악화로 2010년 2월 IMF와 13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기간은 27개월임.
- 동 협정으로 인해 당분간 동국의 채무불이행 등 추가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IMF의 차관 조건인 공공부문 개혁과 금융 시스템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향후 외채관련 지표는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세계은행도 자메이카의 공공부문 개혁 지원을 명목으로 2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하였음.

### 3. 대외경제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sup>e</sup>	2011 <sup>f</sup>
경 상 수 지	-2,038	-2,793	-1,126	-1,249	-2,122
경 상 수 지 / GDP	-15.9	-20.1	-9.1	-9.0	-13.9
상 품 수 지	-3,841	-4,803	-3,088	-3,429	-4,448
수 출	2,363	2,744	1,388	1,545	1,800
수 입	6,204	7,547	4,476	4,974	6,248
외 환 보 유 액	1,878	1,773	1,729	2,171	2,300
총 외 채 잔 액	10,089	10,034	10,485	12,341	13,511
총 외 채 잔 액 / GDP	76.2	73.8	94.9	93.6	88.7
D. S. R.	14.9	15.6	14.6	13.6	..

자료: IFS, EIU

#### □ 수입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소폭 상승

- 2004년 5%대였던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이에 따른 수입 급증으로 인해 2007년 15.9%, 2008년에는 20.1%까지 확대되었음.
- 2009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라 주요 수출품인 알루미늄 수출이 감소하면서 상품수출이 전년대비 50%이상 급감하였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수입 수요 감소로 인해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며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9.0% 수준으로 감소함. 2010년에는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며 상품수지 적자는 확대되었으나, 해외거주민 송금액 증가로 인한 경상이전수지 흑자로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음.

#### □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부족 문제 지속

- 외환보유액은 2006년 23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9년부터 경상수지 적자규모 감소로 증가추세로 반전됨. 이에 따라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2008년 1.9개월에서 2010년 3.3개월로 증가하였으나, 원유와 농산품과 같은 필수 상품을 주로 수입하는 동국 경제구조에 비추어 볼 때 대외적인 변수를

감당하기에는 다소 취약한 수준임.

□ 외채 관련 지표 전반적으로 악화

- 총수출액 대비 총외채잔액은 2007년 132%에서 2009년 178%, 2010년 181%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GDP대비 총외채잔액도 2010년 94%를 기록(2008년 74%)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한편, 채무상환비율(D.S.R)은 2008년 15.6%에서 2009년 14.6%, 2010년 13.6%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경제규모 및 수출규모에 비해 외채부담은 여전히 과중한 편임.

### Ⅲ. 정치 · 사회동향

#### 1. 정치동향

□ 196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내각제 유지

- 1962년 영국의 자치령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국민당(PNP)과 노동당(JLP)간 비교적 안정적인 내각책임제(양원제)의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1989년 이후 18년간 국민당(PNP) 정부가 지속되었으나, 2007년 노동당으로 정권 교체

- 국민당 정부는 1989년부터 18년간 5차례에 걸쳐 집권에 성공하였으나, 2000년 초반부터 이어진 경기침체, 실업증가, 범죄율의 증가, 장관 사임으로 귀결된 다수의 비리 사건 등으로 지지도가 크게 하락하여, 2007년 선거에서는 노동당(JLP)에 참패함.
- 노동당은 브루스 골딩(Bruce Golding) 수상을 중심으로 2007년 선거에서 부패 척결, 치안 유지, 실업률 해소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하원에서 60석 중 33석을 차지하여 우위를 점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집권당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실업률 증가, 치안 악화 등으로 공약 이행에 대부분 실패하여 지지도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 2. 사회동향

### □ 범죄율 상승 등 사회불안 요인 내재

- 야당을 비롯한 현 정권에 대한 불만세력들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국민들도 계속되는 경제상황 악화로 정치권에 불신을 갖고 있음.
- 또한 최근 수년간 지속된 경기침체에 따라 살인, 마약밀매, 절도 등 강력범죄 발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 미국의 신병인도 문제로 인한 폭력조직과의 총격전 발생

- 미국은 2009년 국제범죄조직인 'Shower Posse'의 우두머리인 크리스토퍼 코우크(Christopher Coke)에 대해 마약거래 및 무기 밀거래 등을 이유로 신병인도를 요청하였으나 골딩 총리의 거부로 신병인도는 이루어지지 않음.
- 그러나 미국의 지속적인 압력과 자국내 정치권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2010년 5월 골딩 총리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코우크의 신병인도를 허용하였고 이로 인해 코우크를 지지하는 세력과의 무력충돌로 최소 30명 이상이 사망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음.
- 2010년 6월 코우크는 결국 체포되었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현 정권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으며,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관광업에 큰 타격을 주었음.

## 3. 국제관계

### □ 서방국 중심으로 우호적 관계 유지에 주력

- 자메이카는 1973년 설립된 카리브 공동시장(CARICOM)의 리더로서 북미와의 자유무역협상 추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 EU와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통한 경제협력 및 마약문제 해결에 노력중임.



## 2. 외채 상환 태도

### □ IMF프로그램 성실한 이행으로 외채상환태도 개선

- 동국은 1984년 이후 1993년까지 7차례 공적채무 리스케줄링 경험이 있음.
- 90년대 초반 GDP의 147%에 달하던 외채규모는 2005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여 50%대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글로벌 본드 발행, 유상차관 도입 등으로 인해 외채 잔액이 크게 늘면서 2009년에는 90%대로 상승하였음.
- 외채상환능력 약화로 2010년 IMF 대기성차관을 지원 받았으나, 공공부문 개혁과 금융시스템 개선 등 IMF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국의 외채상환태도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3. 주요 ECA 인수 태도

- 미국 EXIM: 한도 범위 내 전액 인수가능
- 영국 ECGD: 중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2/10/13 ( 북한과의 수교 : 1974/10/09 )

□ 주요협정: 무역협정('79), 문화협정('81), 경제기술협력협정('82),  
사증면제협정('93), 투자보장 협정('03)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5>

한·아르헨티나 교역 규모

단위 : 천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28,277	15,796	33,223	철강판, 건전지 및 축전기, 자동차
수 입	6,001	1,935	3,270	고철, 알루미늄, 커피
합 계	34,278	17,731	35,493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현황(2010년 12월 누계, 총투자 기준) : 8건, 11,330천달러

□ **교역규모는 미미하나, 상품수지 흑자 기조 지속**

- 우리나라의 대 자메이카 교역규모는 2010년 3천 6백만달러 규모(수출 33백만 달러, 수입 3백만 달러)로 매년 대규모 무역 흑자를 내고 있음. 對 자메이카 주요 수출 품목은 철강, 전자기기, 자동차, 고무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고철, 알루미늄, 커피 등임.

## V. 종합 의견

- 자메이카 경제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외채이자비용지급 확대에 의한 재정수지 적자 심화, 잦은 허리케인 피해에 따른 농산물 수출 및 인프라 복구 지연, 보크사이트 생산 부진 등으로 우호적인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1-2%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었으며, 2008-10년에는 대미 수출 및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 급감, 관광업 위축 등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자메이카는 전통적으로 양당제 의원 내각제의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지난 2007년에는 18년간의 국민당 집권이 종식되고 노동당(JLP) 정부가 들어선 상황임.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공약으로 내세운 고용촉진, 치안강화, 부패척결 등의 고질적인 사회 병폐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집권당의 지지도가 크게 낮아진 상황이며 경기침체로 범죄율이 증가하고 폭력조직과의 대립으로 총격전이 발생하는 등 사회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만성적인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 기조가 지속되어 외채상환능력이 약화되면서 2010년 IMF 대기성 차관 지원을 받았으나, IMF프로그램의 성실한 이행으로 외채상환태도가 개선되고 있는 점,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최근 동국의 평가 등급을 상향 조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동국의 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D1등급을 부여코자 함.

문의 : 조사역 최철영(☎3779-5720)

E-mail : cychoi@koreaexim.go.kr